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금호타이어 주식 처분

금호타이어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 150만주 전량을 3월22일 장외거래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창욱 회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측이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객세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24>